

# “더위야 반갑다”... 지역 유통업계 여름맞이 분주

이른 더위에 냉방가전 매출 급증 이마트, 여름가전 최대 30% 할인 홈플러스, 냉방가전 온라인 행사 롯데온, 레인부츠 등 여름패션 제안

역대급 더위가 예상되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유통업계가 에어컨 등 냉방가전과 여름철 패션용품 할인 행사를 마련하는 등 여름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16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어진 때 이른 더위에 에어컨, 선풍기 등 여름가전 수요가 급증했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이달 9일까지 여름가전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상승했다. 특히 에어컨은 35%, 선풍기는 40% 매출이 뛰었다.

이에 이마트는 17일부터 2주간 선풍기, 에어컨 등 여름 가전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 상품으로 ‘신일 표준형 선풍기’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만원 할인한 3만원대 특가에 판매한다. 5엽 날개, 4단 바람 세기 조절 등 필수 기능에 충실한 스



때 이른 무더위에 에어컨, 선풍기 등 여름가전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유통업계가 여름 대비 가전 및 패션 제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 제공

탠드 선풍기다.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제습기도 올해 처음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원룸이나 드레스룸, 세탁실 등 작은 방에서 사용하

기 좋은 ‘보아르 모아 미니 제습기(1.2 l / 3.2 l)’를 4만원대~5만원대로 할인 판매한다. 이와 함께 서큐레이터, 이동식 에어컨 등 총 30여종의 여름 가전도 최대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에어컨 행사도 진행한다. 삼성·LG 신제품, 인기 제품 행사와 사전 대량계약 등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단독 기획한 캐리어, 삼성 에어컨을 선보인다. 가성비 상품 ‘캐리어 스탠드형 에어컨(52.8㎡)’은 500대 한정 행사카드 결제 시 타브랜드의 유사한 제품보다 약 30% 저렴한 할인가에 판매한다.

프리미엄 상품인 ‘삼성 비스포크 무풍 갤러리 멀티형 에어컨(56.9㎡+18.7㎡)’도 행사가에 만나볼 수 있다.

또 삼성·LG 프리미엄 에어컨 행사상품을 행사카드로 구매 시 24개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에어컨 200만원 이상 구매 시 선착순 1500명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2만원권을 증정한다.

홈플러스가 내놓은 온라인 대형가전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온라인 가전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40% 이상 뛰어올랐으며 에어컨, 선풍기 등 ‘시즌 가전’도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홈플러스는 오는 22일까지 홈플러스온라인 한정, 삼성전자 ‘BESPOKE

그랑데 AI 원바디 Top-Fi’ 2종을 대상으로 중복 할인이 가능한 쿠폰을 지급한다. 여기에 여름철 폭염 대비 고객들을 위해 에어컨 등 여름 냉방가전 온라인 할인 행사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에어컨 등 대형가전 외에도 폭염과 장마를 대비하기 위한 여름패션 아이템 행사도 진행한다.

롯데온은 오는 19일까지 ‘미리 준비하는 여름 샌들&슬리퍼’ 행사를 펼친다.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솔, 슈룸마보니, 핏플랩, 어그, 스타카토 등 다양한 브랜드의 여름 신발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올여름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일찍이 레인부츠, 젤리슈즈 등 인기 상품의 재고를 확보했다. 대표 상품으로 ‘핏플랩 블랙 여성 슌 레인부츠 장화’와 ‘어그 여성화 타스만X 레인부츠’가 있다. 또 같은 기간 ‘데일리 슈즈’ 행사도 진행한다. 분홍코끼리, 사본, 인더슈, 소보, 바닐라슈, 착한구두 등이 참여해 매일 신는 플랫폼 슈즈, 구두, 스니커즈, 샌들, 슬리퍼 등 다양한 신발 브랜드 및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 광주은행, 에코플리마켓 ‘나비페스타’ 성료

광주은행은 지난 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재)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에코플리마켓 ‘나비페스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비(나눔+비움)페스타’는 ‘나눔을 위한 비움 실천’이라는 뜻을 담아 광주은행이 새롭게 펼치는 ESG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자원재순환을 통한 환경실천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지난 한 달간 자원재순환 캠페인에 적극 참여했으며, 그 결과 광주·전남·수도권 임직원 1700여명이 의류, 가전, 도서 등 재사용 가능한 물품 5000여 점을 기부했다.

기증된 물품들은 ‘나비페스타’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판매됐으며, 그병일 광주은행장의 애장품을 비롯해 광주은행 스포츠단인 ‘텐텐양궁단’ 소속 최미선 선수와 안산 선수의 연습용 활과 사인이 담긴 특별 제작 액자와 ‘비츠로 배드민턴단’의 에이스이자 국가대표인 조송현 선수의 배드민턴 라켓 등이 현장에서 진행된 경매 물품으로 나와 인기를 모았다.

또 최미선 선수와 안산 선수의 팬 사인회를 열어 방문객들과의 소통의 시간은 물론 광주은행 스포츠단 선수들과 함께



양궁, 배드민턴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 광주·전남지역 보육시설 19곳, 초등 방과후 돌봄기관 20곳의 어린이 400여명을 초대해 은행이 준비한 소비쿠폰을 통해 상점과 체험부스를 돌며 합리적인 소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환경보호 및 나눔문화의 의미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복구에 거주하는 5남매 다자녀 가정을 특별 초대해 선물과 함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그병일 광주은행장은 “임직원들이 활용 가능한 물품을 기부해 자원재순환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나눔 문화 전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광주·전남 비은행예금기관, 자산건전성·수익성 악화

한은 지역본부, 리스크 분석 고금리 등 여파 연체율 늘어 시중은행 대비 대출 증가세

광주·전남지역 상호금융·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으로 고금리·경기둔화장기화 속에 연체율이 늘어난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광주·전남지역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잠재리스크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지역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2023년 말 여신 규모 기준)로 전국 평균(16%)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비은행권을 이용한 대출은 시중은행보다 빠르게 증가 추세에 있는 것

로 파악됐다.

자산건전성은 2023년말 상호금융(2.69%), 새마을금고(3.41%), 저축은행(7.86%)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2022년 말 대비 모두 상승(+1.42%p+1.24%p+4.54%p)해 자산건전성이 저하됐다. 이는 고금리와 경기둔화 장기화에 따른 대출 연체율 상승, 부동산PF 부실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때문에 수익성도 저하됐다. 2023년 말 상호금융(0.39%), 새마을금고(0.14%), 저축은행(-0.22%)의 총자산순이익률은 2022년 말보다 모두 하락(-0.16%p -0.34%p -1.33%p)하는 등 악화됐다. 특히 저축은행은 연체율 상승과 대손비용 증가, 자금조달 비용 상승 때문에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비은행권 기관들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응해 온 결과 자본 적정성과 유동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말 기준 상호금융(67.3%), 새

마을금고(124.1%), 저축은행(205.1%)의 유동성비율은 2022년 말 대비 모두 상승(+3.5%p+19.4%p+36.9%p)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현금화가 용이한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을 위협하는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건설·부동산업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부실 대출 가능성에 대한 선의를 촉구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지역 건설·부동산업의 어려움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은행은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리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정책당국도 이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 PF 사업장의 부실이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범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

## 재테크 칼럼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는 어떤 중앙화폐도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 힘은 오로지 미국의 패권에서 나온다. 과거 금 본위제에서는 달러당 35달러의 금을 보유함으로써 달러의 가치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1972년 금 본위제를 폐지하면서 지금은 그저 미국의 세계 지배력에만 달러의 가치를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달러독재’는 계속되고 그 정도 또한 심해지고 있다.

‘양털깎기’는 달러독재에서 비롯된다.

## ‘달러독재’ 시대, 비트코인은 안전할까

양적 완화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느 순간 미 연준은 금리를 올려서 양적 긴축을 단행한다. 이때 고금리를 좇는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기축통화인 달러에 비해 힘이 없는 대부분 국가의 중앙화폐는 달러 대비 환율이 폭락한다. 폭락한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는 상승하고 미국의 고금리를 따라서 자본들이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부동산, 증권 등 자산시장이 가라앉으며 불황도 시작된다. 가난하고 경제구조가 나약한 국가일수록 그 타격

은 더 심해 그야말로 ‘양털깎기’를 제대로 당하게 된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주장하듯 꼭 미국이 의도한 현상은 아니겠지만 미국의 달러가 워낙 막강하고 독재적인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이 자국 경제를 선순환 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임은 분명하다.

달러는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인 경제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당장 공급이 많으면 가치가 하락해야 하는데 달러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상을 보였다.

이런 달러의 독재, 또는 국가가 통제하는 중앙화폐에 대한 반발로 만들어진 것이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고 발행자가 없는 화폐다. 달러처럼 연준

마음대로 통화량을 조절하고 ‘양털깎기’를 당하기가 쉽지 않은 자산인 것이다.

한때 비트코인은 어느 국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범죄자들이나 거래하는 어둠의 화폐라는 오명을 쓴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잡초 같은 자생력으로 화폐 역사상 볼 수 없었던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중앙권력도 인정하는 자산으로 성장했다. 현대 경제사에서 달러와 금은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안전자산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세상이 변한 것일까. 지금은 그 안전 자산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때가 온 것 같다.